

## 영천 전투의 정치·군사적 의미 재검토\*

박 동 휘\*\*

### •요 약•

본 연구는 6·25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주요 전투인 영천 전투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1950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영천 시가지를 중심으로만 집중적으로 서술되고 주목받아온 영천 전투를 영천 관내에서 일어난 세 개의 전투로 확장하여 정치와 군사적 의미를 재부여하고자 했다. 영천 전투는 보현산 부근 전투와 신녕 전투, 그리고 영천 시가지 전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전투가 상호 연계되어 있기에, 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영천에서의 국군의 대승리를 군사적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군사적으로 중요한 영천 전투가 ‘신한국 계획’이라는 자극적인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한국 계획이 만든 역사적 왜곡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자 6·25전쟁 당시 미국의 망명정부 계획을 고찰하였고, 영천 전투 기간에 미국이 신한국 계획을 입안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세 개의 국면으로 구성된 영천 전투 본연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주제어 : 6·25전쟁, 영천 전투, 신녕 전투, 보현산 부근 전투, 신한국 계획

### I. 들어가며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수세에 몰렸다. 한반도가 적화통일이 될 운명이었다. 6월 말 미국은 신속히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회원국들의 참전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쟁 초기 유

\* 본 연구는 2022년 12월 22일(목), 영천시 주관 영천 군사역사 학술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일부를 보완 및 발전시킨 내용이다.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부교수

엔군의 주축이었던 미군은 한반도에 축차적으로 투입되었기에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즉, 국군은 소수의 미군과 함께 지연전을 통해 대규모 북한군의 무서운 공격 기세를 늦춰야만 했다.

최초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제24사단과 대한민국 국군은 주요 지점만을 방어하는 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그러나 부족한 병력으로 완전히 협조된 방어선을 형성하지 못한 미군과 국군을 우회하는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미8군 사령관 월턴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추가로 전개된 미군 병력과 재편된 국군의 병력으로 하나의 연결된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적이 우회할 수 없는 협조된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것은 천연 자연장애물에 연하여 구축된 낙동강 방어선이었다.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은 충분하지 않은 병력을 가진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낙동강과 산악지역이라는 천연 자연장애물의 이점 속에 좁은 정면을 방어하여 적의 우회 및 돌파를 차단하여 남진을 저지하는 동시에 반격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어느 한 곳이라도 돌파된다면 워커 장군이 생각했던 방어의 개념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낙동강 방어선부터 부산까지의 중심도 짧았기에 이 방어선의 붕괴는 더는 한반도에서의 방어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조정된 낙동강 방어선<sup>1)</sup>을 기준으로 미군이 방어하는 대구부터 마산까지의 남동으로 뻗어 있는 서부 축선과 국군이 담당했던 대구부터 포항으로 연결된 동서의 중동부 축선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 전체를 동시에 공격했다. 이는 군사적으로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방어선이 붕괴한다면, 그 지역을 공략하여 부산까지 진격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 점령과 동시에 전쟁 종결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방어 측면에서 약하다고 판단한 곳이 바로 영천지역이었다. 최초 북한은 낙동강 방어선에 도달해 전 정면에서 동시 공격을 통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자 했다. 그런데도 가장 핵심 지역은 아무래도 주력 부대가 남진 루트로 사용하던 경부가도 방향이었다. 통상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위한 북한의 총공세를 8월 공세와 9월 공세로 나누고 있다. 최초 대규모 공세인 8월 공세의 주력은 대구 북방이었으며, 국군이 담당하는 방면을 지향했다. 이곳은 미군이 담당하는 서부 축선과 국군이 담당하는 중동부 축선이 만나는 협조점이었다.

---

1) 워커 장군의 명령에 따라 유엔군 예하 미군과 국군이 1950년 8월 1일부로 형성한 낙동강 방어선은 최초 마산-왜관-영덕에 이르는 약 240km 구간이었다. 그러나 전투력보다 중동부 축선의 국군에게 상대적으로 긴 방어 정면이 부여됨에 따라 안동지역에서의 위기 등이 발생하자 워커 장군은 8월 11일부로 마산-왜관-포항을 잇는 180km 전선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최초와 조정된 낙동강 방어선을 구분하기 위해 최초의 낙동강 방어선을 'X선,' 조정된 낙동강 방어선을 'Y선'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북한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8월 공세 간 대구 북방을 지키던 국군 제1사단 방면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대구를 사수하기 위해 유엔군이 모든 전투력을 동원했기에 북한군의 대구 진출은 좌절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차선책으로 대구의 동쪽에 있는 영천을 선택했다. 국군이 홀로 담당하던 영천을 북한군이 점령한다면, 북한군은 강력한 유엔군의 정면 방어선 대신 동쪽에서 대구의 국군 주력을 공격하거나, 또는 대구로의 진격 없이 바로 부산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영천은 신의주-평양-서울-대전-대구-부산을 연결하는 주도로 상에 있는 곳이었다. 영천을 점령 후 부산으로 진격만이 아니라 측후방에서 대구를 공략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했다. 또한, 영천은 미군이 담당하고 있던 서부 축선이 아닌 화력과 장비, 병력, 지휘 체계, 그리고 훈련마저 부족했던 국군이 담당하는 중동부 축선 상에 있었다. 8월 공세에 실패한 북한군의 주력이 이곳에 집중된 것은 군사적으로 합당한 판단이었다. 영천지역의 피탈된다면, 전황은 북한군에게 유리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방증하듯 북한은 6·25전쟁 전반에 관한 검토를 실시한 별오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1950.12.4.)에서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이를 상실하자 패배하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2)</sup>

영천 전투의 중요성은 6·25전쟁 이후의 전쟁사 서술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지표로 6·25전쟁 공간사나 전쟁 전반을 다룬 저서들에서 영천 전투는 다른 전투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방지역의 작전을 책임지는 현 제2작전사령부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지역 내 다양한 전투를 다룬 『향토전사』를 1995년도에 출판한 바 있다.<sup>3)</sup> 여기에는 국군이 수행한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전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영천 전투가 ‘영천 섬멸전’이라는 소제목으로 다부동 전투 등 9개의 전투가 묶여 있는 ‘대구 방어작전,’ 기계·안강 부근 전투 등 3개의 전투가 포함된 ‘동해안 지구 작전’ 등과 같은 큰 항목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 중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다부동 전투가 총 6장 분량으로 대구 방어작전 중 일부로 서술되어 있던 것에 반해 영천 섬멸전은 개별 항목으로 총 9쪽에 걸쳐 있다. 제2작전사령부가 편찬한 『향토전사』만이 아니라 다른 6·25전쟁을 다룬 저서들 역시 비슷한 비중으로 영천 전투를 다루고 있다.<sup>4)</sup>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464.

3) 제2군 사령부, 『2군 지역 전사』, 대구: 제2군 사령부, 1995.

4) 육군본부군사감실, 『6·25 사변 육군전사 제3권』, 서울: 육군본부군사감실, 19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낙동강방어작전기』,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

그런데 영천 전투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경향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첫 번째 문제는 6·25전쟁 초기 지리와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영천 군내에서의 모든 전투가 아닌 영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최종 전투(1950.9.5.~9.13)만이 조명받는 점이다.<sup>5)</sup> 북한은 전쟁 개시 후 무서운 기세로 본진을 부산으로 진격시킴과 동시에 후방지역으로 유격대를 투입했다. 그리고 북한군 유격대의 최첨단은 영천 북방을 지속해서 위협한 바 있다. 이는 보현산 부근 전투이고, 이후의 영천 시가지에서의 전투와도 연결되고 있다. 또한, 영천 전투의 승리 요인에 있어 중요했던 신녕 전투가 별개의 전투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보현산 부근과 신녕 모두 행정구역상 영천군으로서 이들은 영천 시가지 전투와 하나로 묶여 분석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개별적으로 서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영천에서 일어난 중요한 세 개의 전투를 하나로 연계해서 서술할 것이다. 이는 영천 전투의 역사적, 그리고 군사적 가치를 통합하고 군사의 원칙 차원에서 재고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영천 전투의 의미 왜곡 현상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천 전투가 중요했던 이유는 북한군이 이곳 영천을 돌파했다면 낙동강을 연하는 선에서의 유엔군의 방어계획 실패와 북한군의 수세 전환 시 실시될 역습인 인천상륙작전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영천을 지나는 동서와 남북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통해 측방에서 대구의 동쪽을 위협하고 국군의 동서 보급로를 차단하며, 궁극적으로 부산까지 진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작전한계점에 도달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영천을 돌파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이곳 영천에 투사했다. 하지만, 앞선 군사적 중요성 설명만으로도 중요한 영천 전투가 어느 날 갑작스레 등장한 근거 없는 ‘신한국계획(New Korea Plan)’으로 인해 그 자체로만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출처 불명의 루머를 바로 잡아 영천 전투가 가진 본연의 의미를 다시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국전쟁전투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육군제3사관학교, 『향토전사』, 영천: 육군제3사관학교, 19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上)』,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5; 육군군사연구소, 『1129일 간의 전쟁 6·25』,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4.

5) 박경석, “영천지구 전투”, 『전사』, 제8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76; 육군군사연구소, 『영천 대회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1995; 김정무, “영천지구 전투 재조명”, 『국방과 기술』, 제99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6; 김두현, “낙동강 방어선에서 영천지구 전투 연구”, 『군사논단』, 제85호, 한국군사학회, 2016; 김진수, “6·25전쟁기 영천전투의 재조명”, 『한국군사학논집』, 제77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1.

## II. 3 in 1의 영천 전투: 보현산 부근 전투, 신녕 전투, 그리고 영천 시가지 전투

일반적으로 영천 전투는 6·25전쟁사를 다룬 공간사와 주요 서적들, 그리고 영천 전투만을 독자적으로 다룬 저서들 모두에서 1950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영천 북방에서부터 시내, 그리고 경주 북방의 아화까지 진출했던 북한군 제15사단을 국군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이 격퇴한 것을 말한다. 특히 이는 북한군이 낙동강에서 실시한 8월 공세 실패 후 재차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실시된 9월 공세의 가장 중요한 전투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군의 공격이 시간상으로 일시적 단절이 있었고, 공격의 중점 역시도 변화했던 것에 착안해 후대의 군사사가들은 북한군의 공세를 8월과 9월 공세로 나누었다. 이는 사회과학적 분석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군 공세의 시기적 구분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여러 전투 간의 단절을 만들어 냈다. 구체적으로 영천 시가지를 둘러싼 9월의 핵심 전투로부터 보현산 부근에서의 전투와 신녕 전투가 마치 단절된 다른 전투로 비치고 있다. 먼저, 6·25전쟁의 발발로부터 불과 2주 정도 지난 시점인 7월 11일경 영천 북방에 북한군 유격대원들이 침투해 들어왔다. 대한민국은 경찰과 소규모 정규군을 통해 북한 유격대를 격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내 이곳은 양측 정규군의 격전지로 변했고, 이들이 영천 중심 시가지로 이동해 9월의 영천 전투로 비화하였다. 두 번째는 신녕에서의 전투이다. 낙동강 방어선 형성 이후 안동-의성에서 진격한 북한군이 영천의 북서쪽 신녕을 통해 영천 방면으로 진격하고자 했다. 북한군이 만약 신녕을 돌파한다면 우측의 보현산부터 영천으로 이어지는 주격전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 국군 제6사단은 위기 속에서도 신녕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여 9월 영천 전투의 숨은 공신이 되었다. 즉 이전의 서술에서 마치 서로 다른 전투처럼 서술했던 전투는 실제로 상호 간에 연결된 전투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또한, 세 전투 모두 영천 관내에서 이루어진 전투였다. 따라서, 다음은 영천군 관내에서 발생한 세 개의 전투를 시간의 순서를 기준으로 설명함으로써 군사적 의미 측면에서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1. 영천 북방 보현산 부근 전투(7.11.~9.4)

육군본부군사감실이 편찬한 『6·25 사변 육군전사』(1954)는 보현산을 기록이 심한 고산지대이자 소백산맥의 중추지대로 표현하며, 그 울창한 삼림과 첩첩한 심산유곡의 지대 때문에 공비의 은폐지로 가장 이상적 지역이라 묘사했다.<sup>6)</sup> 이러한 연유로 6·25전쟁 초기

동해안 방면으로 남하하던 북한군 제5사단의 일부 병력과 울진에 상륙한 제766부대가 낙동강 방어선 형성 이전 1,000m 이상의 고지대로 이루어진 영천 북방 보현산 일대로 침투를 시도했다. 이들은 초기 기습을 받아 협조된 방어체계를 갖추진 못한 아군을 중심 깊게 돌파하여 후방을 교란하려는 목적으로 태백산맥을 이용해 봉화, 영양, 영덕에 침입 후 구암산과 보현산 부근까지 남하한 것이다.<sup>7)</sup> 주전장이 9월 영천 시가지로 옮겨지기 전까지 보현산 부근에서 발생한 전투는 크게 2기로 나눌 수 있다.

오진우가 지휘하는 제766부대의 일부는 태백산맥으로 침투 후 남하하여 7월 초에 보현산에 본거지를 형성했다.<sup>8)</sup> 병력의 증강함에 따라 이들 북한 유격대는 청송, 영천, 경주, 의성 등지에 출몰하여 아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며 남진하는 북한군 주력과 합세하여 전후방 동시 타격을 통해 조기에 아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더욱이 이들은 식량 탈취와 노동력 착취 등의 행동들을 통해 영천 주민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민간인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 전파를 통해 민간인들 사이의 분란도 조장했다. 북한군 제5사단 병력 일부를 포함한 적 유격대원은 소화기로 경무장한 병력 약 5,000명이었다.<sup>9)</sup> 유격대이다 보니 그들은 박격포 5문과 로켓포 2문 정도의 중화기만을 보유했다.

제1기 보현산 부근 전투에서 후방으로 중심 깊게 영천 북방으로 침투한 북한 유격대를 격퇴하기 위해 국군 제3사단 예하 제1유격대대와 강원도 경찰 비상경비사령부 예하 경북 경찰 일부 약 1,330명이 7월 9일 이전에 보현산 부근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동해안 영덕의 전황이 악화하여 국군 제3사단은 예하 병력 일부만 남기고 동쪽으로 이동했다. 초기 북한군 유격대와의 전투의 핵심은 강원도와 경북의 경찰이었다. 경북 경찰은 예하의 특공대와 지서원을 동원하여 북한군 유격대에 맞섰다.

적은 수의 군 병력과 함께 강원도에서 내려온 경찰만이 아니라 영천 관내 경찰부터 경주, 청송 등 인근 경찰이 북한군 유격대 격퇴를 위해 보현산 부근 전투 1기 기간인 1950년 7월 11일경부터 8월 6일까지 고군분투했다. 7월 11일 아군의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766부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200여 명의 군인이 영천군 고경면과 자양면 경계선을 지나 남하해왔다. 영천 시내로부터 동북방 12km 지점이었다. 이를 알아차린 영천 경찰서 경찰대와 영천 주재 철도경찰은 20시경 협동공격을 하여 침투해온 적 유격대원을 문복산

6) 육군본부군사감실, 앞의 책, p.49.

7) 앞의 책, p.49.

8) 적 제766대대의 지휘관인 오진우가 직접 영천 북방 보현산에 위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9) 육군본부군사감실의 자료에 따라 5,000명이라고 명기했으나, 유격대의 규모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보인다. 전반적인 북한군의 활동 기록을 보서는 이보다는 작은 규모의 북한군 유격대원들이 보현산을 근거지로 활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의 과장 또는 오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으로 격퇴했다. 북한군 유격대원 약 80여 명이 7월 13일 영천군 북안면을 거쳐 경주군 산내면 신계동에 침투하기도 했다. 경주 경찰서 특공대는 15시경 적을 문복산으로 몰아낸 후 3시간 교전 끝에 포위 섬멸하는 전과를 얻기도 했다. 7월 25일의 경우 경찰대는 05시 영천군 자양면 성곡동, 08시 신녕면 부산동 민가에 내려와 식량을 약탈하고 있는 북한군 유격대를 발견하여 격퇴하기도 했다. 이들 뒤에는 20여 명의 북한군 유격대원이 영천군 화북면 입암동 민가에서 식량을 약탈하다 화북 지서원에 발각되어 격퇴되는 사건도 있었다. 7월 말까지 경찰대는 보현산을 근거지로 하여 북쪽의 청송부터 영천군 시내 기준 북서쪽 신녕과 동측방, 그리고 심지어 남쪽 경주 북방에까지 매일같이 출몰했던 북한군 유격대원들을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국군 지휘부는 보현산 부근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유격대 활동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1950년 7월 말 본격적으로 군대를 투입했다. 이러한 결정에 맞춰 국군 제1공병단 예하 공병대대 500여 명이 보현산 일대에서 북한군 유격대를 격퇴하기 위해 보현산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영천 북방에서 홀로 악전고투 중에 있던 경찰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제1공병단 공병대대는 7월 27일 23시경 구산동에 대대 지휘소를 설치했다. 예하 2중대는 모계동 우측 569고지에, 제3중대는 산두봉 749고지에 각각 위치한 후 적 유격대에 대한 수색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7월 31일에는 국군 제3사단 예하 제1유격대대도 영천에서 작전을 시작했다. 그날 16시 40분경 아군 유격대대가 영천에 대대 지휘소를 설치했다. 유격대대 예하 1개 분대는 투입되자마자 보현산 부근 적정 수색 중 대규모의 북한군 유격대를 발견했다고 대대본부에 보고했다. 대대장은 대대의 전체 병력을 상송동 북방 능선 일대에 배치하여 북한군 유격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19시경에는 북두봉 569고지 부근에서 아군 공병대대와 북한군 유격대 간의 치열한 전투도 전개되었다.

8월 초까지 아군은 국군과 경찰 간의 군경협동작전을 이어가며 보현산을 근거지로 하여 주변 지역을 위협하던 북한군 소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아군은 8월 6일 보현산을 중심으로 구산동~도평동~월매동~구암산~운주산~상송동~사촌동을 연하는 방어진지에서 북한군 유격대에 대한 최종공세를 펼쳤다. 아군은 06시경 보현산 정상 확보하는 등 북한군을 북쪽으로 몰아내는 데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 6·25전쟁 직후 육군본부군사감실은 육군전사를 작성하며, 이 시점까지가 보현산 부근에서의 전투 제1기 작전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현산 부근에는 북한군 유격대가 무서운 기세로 남진하는 북한군 본진과 합류하기 위한 호기를 노렸다. 즉 영천은 여전히 북한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보현산 부근에서의 제2기 작전은 1950년 8월 7일 북한군의 정규사단이 제766부대와 합류하며 시작되었다. 적 유격부대는 아군에게 격퇴되어 사망으로 흩어진 부대원들을 재수습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청송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7사단이 제766부대에 합류했다. 북한 정규사단이 처음으로 영천에 나타났다. 북한군 병력이 천 명 단위에서 만 명 단위로 바뀌었다. 이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아군의 낙동강 방어선 후방으로 침투하여 아군의 동서 주보급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구 북방 다부동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잘 저지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의 동측방을 공격해 아군 방어선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영천지역에서의 북한군 활동은 부산을 조기에 점령하고자 하는 그들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북한 제7사단 주력은 8월 8일경 아군과의 접촉 없이 도평을 지나 보현산 북동쪽에 있는 포항시 입암까지 남하하는 데 성공했다. 적 사단 예하부대 일부는 보현산으로 내려와 유격부대에 합류했다. 그날부터 양측의 소규모 부대 간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군 제7사단의 최종 공격 방향은 기계·안강 방면이었다. 이들은 8월 13일 기계에 진입을 시작했다.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군단이 담당하는 지역이었다. 북한군은 영천 북방에 다른 사단들을 투입했다. 영천 북동쪽 신녕 방면에 북한군 제8사단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 설명할 영천군 신녕에서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추후 북한군 제15사단이 영천 북방 보현산 쪽으로 진입하며 9월 영천 시가지를 넘어 경주 북방 아화까지 진출하여 아군에게 엄청난 위기를 닦치기도 했다.

한편, 국군 제1군단 예하 제8사단은 유격대에 의한 게릴라전에서 정규전 형태로 영천에서의 위기가 본격화되자 8월 13일 영천에 투입되었다. 제1군단은 8월 13일 15시 군단 작전명령 제56호를 내려 의성에 있던 제8사단을 영천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다. 제8사단은 명령에 따라 벌전에 사단사령부를 설치한 후 보현산의 아군 부대 전체를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사단은 도평에 제10연대, 구산동에 제21연대, 모계동에 제16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연결된 방어선을 형성하고자 했다. 아군 유격부대와 경찰대는 제8사단의 통제 속에 영천 북방의 깊은 산속에서 북한군 유격대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작전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 아군 유격부대들은 제8사단의 방어선 형성에 따라 상부의 명령으로 본대 합류 또는 다른 부대로 배속되었다.

기계·안강을 주공격 방향으로 삼고 있던 북한군 제7사단 일부가 영천 북방 보현산 인근에서 아군 제8사단에 위협을 주긴 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소규모였고 격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전환은 8월 25일에 변했다. 북한군 제15사단 본대가 영천 북방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10시경 적 제15사단은 아군 제8사단 16연대 방어진점인 보현산 방면으로 침투를 시도했다. 아군 제8사단 방어전선 전체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공세가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국군 수뇌부와 상급계대인 제1군단은 영천 북방 상황이 심상치 않자 경찰대 일부 추가 투입과 다른 지역으로 전용되었던 타부대 소속 부대들을 다시 영천으로 재배치하는 조처를 했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아군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아군의 방어선에 압박을 가하며 양측의 전선을 남측으로 끌어내렸다. 그들은 8월 31일경 인접한 기계에 추가로 투입된 적 제12사단과 동시에 보현산 일대의 아군 방어선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취했다. 거세진 북한군의 공세로 인해 국군 제8사단 예하 연대들은 아군 방어선을 서서히 남측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아군 병력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방어선을 지키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증원되는 북한군의 공세 때문에 9월 3일경 영천 동쪽의 기계 방면 국군 수도사단의 방어선이 북한군 제12사단에 의해 돌파되었다.

북한군 제15사단 역시도 국군 제8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해 내려오기 시작했다. 보현산과 기룡산 등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에 배치된 예하 연대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9월 초부터 더욱 강력해진 북한군의 야간과 새벽에 실시된 침투식 공격으로 제8사단의 보현산 방어선이 붕괴하였다. 적의 강요에 의해 결국 9월 4일을 기점으로 국군 제8사단의 방어선은 자천 북방과 선천동 일대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8월 7일 시작된 보현산 부근 전투 제2기가 약 1달 동안 지속하다 9월 4일을 기점으로 종료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가 대중에게 잘 알려지고 많은 역사적 조명을 받는 ‘영천 대첩,’ ‘영천 대회전’ 등으로 불리는 영천 시내를 중심으로 한 전투이다.

## 2. 신녕에서의 전투(1950.8.30.~9.12.)<sup>10)</sup>

9월 5일 시작된 영천 시가지 전투에 앞서 영천군 관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전투인 신녕 전투 역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1914년 군면통폐합시 신녕군은 영천군에 흡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1)</sup> 즉 신녕은 행정구역상 시군구 단위의 영천군에 속하면서도 신녕이라는 하위 읍면동 단위의 이름으로 불리며 마치 의성과 기계·안강, 청송 등에서의 전투처럼 영천 전투와는 별개인 것처럼 분류되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신녕 지역에서 국군

10) 전체 국면 상 8월 1일부터 이어진 전투의 마지막 전투 장소가 신녕이었고, 화산 일대를 기준으로 좌측 조림산과 갑령 일대가 직접적으로 공격받기 시작한 시점은 1950년 8월 30일경이었다.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영천시(永川市)),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7752>(검색일: 2022.12.06).

제6사단의 성공적 방어가 동쪽의 제8사단 9월 전투 승리의 발판이었음에도 이를 연계하여 군사적 의미를 부여한 서술이 드물다. 군사적으로 신녕을 방어하던 국군 제6사단이 만약 북한군에게 돌파되었다면, 국군 제8사단의 좌측방이 적에게 노출될 것을 의미했다. 북한군은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사이의 협조점의 취약점을 이용해 영천만이 아니라 대구의 동측방까지 쉽게 위협했을 것이다. 따라서 신녕에서의 국군 제6사단의 선전 역시도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기념비적인 전투인 영천 전투의 일부로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신녕 전투는 낙동강 방어선 형성 시점인 1950년 8월 초 대구를 점령하기 위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의 안동~의성 방면 진출로부터였다.<sup>12)</sup> 중동부 전선을 책임졌던 북한군 제2군단의 주요 공세 목표는 대구 탈취였다. 예하 적 4개 사단은 8월 공세 간 대구 전선을 향해 집중적 공격을 시도했다. 신녕 전투를 주도했던 북한군 제8사단은 이들 4개 사단 중 1개였다. 그러나 안동~의성~대구 축선에 투입된 북한군 제8사단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예하 1개 대대 규모가 8월 7일 의성 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에게 큰 피해를 봤던 것이다.<sup>13)</sup> 또한, 대구를 조기에 점령하겠다는 북한군 제2군단의 8월 공세 역시도 유엔군의 지원을 받은 국군 제1사단과 기타 배속부대에 의해 다부동에서 좌절됐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8사단은 대구 축선이 아니라 팔공산을 우회하여 신녕을 거쳐 하양, 그리고 대구 동측을 공략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되게 되었다.

안동~의성을 거쳐 대구 북방으로 투입될 예정이었던 북한군 제8사단의 병력은 편제의 약 70%인 7,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sup>14)</sup> 제81, 82, 83연대로 구성된 적 사단은 122밀리 곡사포 12문과 76밀리 곡사포 21문, 45밀리 대전차포 42문 등 중화기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미상 규모의 전차까지 있었다. 이들은 남진하며 손실된 병력을 남측의 점령지에서 충원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며 국군보다 우세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북한군은 유엔에 제공권과 제해권을 내준 상태라 보급에 차질을 겪는 등 작전 지속능력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대구를 우회하려던 북한군 제8사단에 맞서 운산동에서 화산에 이르는 15km 전선을 담당한 국군부대는 전쟁 초기 38선에서 인근 춘천-홍천 전투에서 선전하며 북한군의 최초 기도를 좌절시킨 제6사단이었다. 사단은 예하 제2, 7, 19연대 6,500명 정도에 더하여 배속된 7사단 제5연대(-1)와 기갑연대(-1) 등 5개 연대로 구성되었으며, 병력은 대략 8,500여 명 규모였다. 편제와 비교하면 병력은 70% 수준이었지만, 현지 관서의 도움과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8, p.348.

13) 위의 책, p.347.

14) 위의 책, p.349.

후방지역에서의 추진으로 보급 상태가 북한군보다 양호했다.

위커 장군의 지시에 따라 아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연해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협조된 방어를 하고자 했다. 8월 1일 제2군단장은 국군 제6사단에게 함창에서 나와 상주와 의성 사이 지역에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렸다.<sup>15)</sup> 사단은 8월 2일 새로운 진지 점령을 시작으로 3일경 낙동강 남단에 진지 편성을 완료했다.<sup>16)</sup> 그러나 다음날인 8월 4일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압력으로 인해 국군 제6사단 예하 연대 전체는 최초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북한군의 공격 속에 소규모 반격작전을 통해 진지를 다시 회복했던 적도 있지만, 아군 전체는 서서히 후방지역으로 전선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 최초 아군 제6사단을 공격했던 북한군은 제13사단 예하 부대들이었다.

안동지역의 조기 피탈 등 중동부 전선 전체에서 아군의 최초 낙동강 방어선(X선)이 유지되지 못하자 미 제8군 사령관 위커 장군은 조정된 낙동강 방어선(Y선)으로 이동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 제6사단은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군위-의흥 부근까지 전선을 조정하여 내렸다. 그런데도 북한군의 거센 압력은 계속 이어졌다. 8월 중순 무렵 국군 제6사단 전방에서 공격해온 북한군은 제1사단으로 추정된다.

8월 말, 국군 제6사단은 동측으로 인접한 제8사단과 협조된 방어를 위해 남진하는 북한군의 압력 속에 전선을 신녕 북방 군위군의 조림산과 갑령 일대로 조정했다. 조림산과 갑령은 군위에서 영천군 신녕면과 시군단위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다. 이 시점 신녕 북방에서 아군을 위협하고 있던 북한군은 제8사단이었다. 8월 26일 정도를 기해 국군 제6사단과 적 제8사단이 본격적으로 조림산과 갑령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준비했다. 신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에 영천군 역시도 이때부터 북한군 정규군과의 전투 현장이 되었다.

북한군의 침투 공격으로 국군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8월 26일 사단의 주저항선을 370고지~갑령~화산 일대로 조정을 지시했다.<sup>17)</sup> 사단의 예하 연대인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새로운 주방어선에서의 전면적인 재편성에 들어갔다. 방어선의 조정에 따라 이 시기부터 조림산에서 화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서 양측 간의 전투가 전개되었다. 특히 국군 제6사단은 기존 전선의 좌측 일부를 제1사단에 인계 후 의흥에서 갑령으로 이어지는 축선 전투에 집중하기로 했다.

북한군 제8사단 예하 제83연대가 국군 제6사단 방어 지역 침투에 성공했다. 화산 일대

15) 위의 책, p.351.

16) 위의 책, p.351.

17) 위의 책, p.349.

로 북한군이 진입을 시도했고 좌측의 조림산이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신녕만이 아니라 영천과 대구 동측방이 위협받을 위기에 놓였다. 매우 급한 상황 속에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육군본부와 제2군단은 제1사단 제15연대와 신편 제7사단 제8연대 일부를 제6사단에 배속시켰다. 증강된 국군 제6사단은 8월 29일 즉각적으로 화산탈환 작전에 나섰다. 쉽지 않은 전투 속에 8월 31일 국군은 목표했던 화산을 재점령했다. 화산 일대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화산을 내준 북한군 제8사단은 9월 2일 18시를 기해 의흥~갑령~신녕~하양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개방시키기 위해 전차를 동반한 공격을 개시했다. 북한군 제4공격집단의 주공인 제8사단이 전차 21대를 동반하여 조림산~갑령 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군의 집중포화 속에 북한군의 보전 협동공격은 좌절되었다. 21대의 적 전차가 파괴되었고, 신녕을 지나 하양, 그리고 대구까지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계획 전체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한편, 이에 호응하여 같은 시기 조공인 북한군 제15사단 역시도 전차 5대를 동반하여 죽장~영천 축선을 공격했다.

조림산과 갑령에서의 돌파가 실패한 후 북한군 제8사단은 9월 5일 다시 화산 부근에서 국군의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미 작전한계점에 도달한 북한군의 공세는 신녕을 위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국군 제6사단 전방의 전선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9월 12일까지 북한군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군의 전선을 돌파할 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9월 초 제6사단 동측을 담당하는 국군 제8사단의 방어선은 붕괴하고 말았다.

신녕의 동측방 보현산 일대 국군 제8사단이 밀려나는 위기였지만, 신녕 북방에서 국군 제6사단의 방어작전 성공은 이후 작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천의 서측방의 전선 안정에 따라 북한군 제4공격집단의 주공 제8사단이 조공인 제15사단과 합류할 수 없었다. 만약 적 제8사단이 신녕을 지난 영천 시내와 하양 사이를 통해 남하하였다면 영천 전체 전선은 조기에 붕괴하였을 것이다. 국군 제8사단의 서측방 노출은 전선의 조정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즉 신녕에서의 국군 제6사단의 선전은 이어지는 영천의 위기가 더 확전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을 조기에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한군은 국군 제6사단의 활약 속에 대구의 동측방을 위협할 수도 부산으로 진격을 이어갈 수도 없었다.

### 3. 영천 시가지 전투(1950.9.5.~9.13.)

북한 제4공격집단의 주공이었던 제8사단과 조공이었던 제15사단의 동시 공격에 국군 제6사단이 담당하던 신녕 지역과 달리 국군 제8사단이 담당하던 보현산 지역의 방어선이 돌파되었다. 이는 높은 산악지형으로 얼마 되지 않았던 아군의 동서 보급로가 적에게 차단될 위기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체의 위기, 더 나아가 부산까지 적에게 위협받는 순간이었다. 북한군은 5개 연대와 함께 전차 12대를 아군 방어선의 취약지점인 영천 방면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증강된 북한군 제15사단이었지만 9월 5일 본격적인 영천 시가지 전투가 시작되던 시점에 편제 12,000명 대비 4,200명 정도로 전투력이 감소한 상태였다.<sup>18)</sup> 예하 부대로는 제45, 48, 50보병연대와 포병연대, 그리고 제73독립연대, 제103치안연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격 기세가 유지된 상태라 북한군 제15사단은 위협적이었다.

대한민국의 육군본부는 영천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9월 5일 10시 30분부로 제8사단의 소속을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변경시켰다.<sup>19)</sup> 이는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전투지경선을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으로 변경한 것으로 영천 지역인 신녕과 영천 시가지 전투 모두를 제2군단이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신녕과 보현산, 그리고 영천 시가지 전투가 모두 하나의 작전으로 묶여서 설명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한편, 위기가 고조되자 영천을 담당하던 국군 제8사단에는 차례로 여러 부대가 배속되었다. 투입되었던 부대로는 제8사단 예하 10, 16, 21연대부터 제7사단 3연대(-2), 5연대, 8연대, 제1사단 11연대, 제6사단 19연대, 그리고 미군 제1기병사단 예하 전차 1개 소대(전차 5대)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많은 부대의 투입은 영천지역의 중요성과 당시의 위급함 모두를 증명하는 지표임이 틀림없다.

영천 시가지 전투에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이었다. 9월 6일 오전 영천역을 중심으로 한 영천 시내가 북한군에게 처음으로 피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군은 그날 오후 미군 전차 5대를 동반한 협동공격을 통해 완산동 일대 시내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승리도 잠시 9월 7일 북한군 제45, 50연대의 공격으로 영천 시내가 다시 북한군에게 재 피탈되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 북한군 병력 일부가 조교 방면에서 금호강을 건너 영천 남쪽 입포와 경주 북방 아화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18) 위의 책, p.435.

19) 위의 책, p.391.

국군 제8사단을 중심으로 배속된 아군 병력은 영천 시내의 피탈과 북한군 최침단의 경주 북방 아화까지 진출한 위기 속에서도 피탈된 지역 좌·우측 건부진지를 확보하여 추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였다. 추가적인 병력의 증원 없이 주력이 영천 시내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다 보니 일부 침투한 북한군 최침단에 있는 부대 역시도 경주 북방에서 더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8일 아군 제11연대와 19연대가 피탈된 영천 시내 재탈환에 성공했다. 중심 깊게 북한군이 돌파한 상황이었지만, 9월 8일 아군의 역습 성공과 함께 북한군이 오히려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당하게 되었다. 심지어 보급이 부족했던 북한군은 이러한 전투 속에 보급수송 차량 20여 대를 잃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9월 8일 영천 시내 탈환을 기점으로 제2군단의 적극적 지원 속에 국군 제8사단을 중심으로 한 반격작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임포굴 인근에서 북한군 차량 59대와 120밀리 곡사포 16문이 아군에게 노획되었다. 적 15사단 포병 화력이 무력화된 순간이기도 했다.

9월 10일 국군은 포획한 북한군 간부를 통해 대의동 과수원에 있던 북한군 제15사단 사령부의 위치까지 식별했다. 아군 제16연대와 19연대가 적 사단사령부를 기습하여 짓밟았다. 이 시점부터 9월 13일까지 국군은 6·25전쟁에서 처음으로 군단급 반격작전을 시행했다. 영천에서 아군이 완전히 주도권을 쥔 것이다. 영천에서의 전투는 9월 13일까지였지만, 사실상 9월 10일을 기점으로 국군의 승리로 완전하게 전환되었다. 낙동강 방어선 전체 국면에서 9월 영천에서의 위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유엔군과 국군 모두를 긴장하게 했던 최후의 어려움이었던 반면에, 이곳에서의 승리는 아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총반격작전의 발판이 되었다.

### Ⅲ. 역사 왜곡 바로잡기를 통한 영천 전투의 정치·군사적 의미 재부여

크게 세 전투로 이루어진 영천 전투는 국군이 스스로 북한군의 총공세를 격퇴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7월 초 시작된 보현산 부근에서의 전투부터 신녕 전투, 그리고 영천 시가지 전투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민관군이 일치단결하여 북한군의 공세를 막았다는 사실은 영천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한 사실이다. 아군 경찰은 보현산 인근으로 침투한 북한 제766부대로부터 지역을 방어했으며, 북한군 주력과 이들의 전후방 동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영천 내 경찰은 직접 보현산 인근 북한군 격퇴에 참여했으며, 관서는 보급품 조달을 통해 군경의 전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앞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역민들은 관내에서 전투하는 외부에서 온 국군 용사들의 원만한 작전을 위해 길을 안내하고 적의 위치를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무엇보다도 전쟁 초기 북한군 유격대원들이 보현산 등에서 마을로 내려와 약탈 등을 일삼았을 때 주민들은 북한에 협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아군 군경에게 그들의 만행과 대략적인 위치를 제보하는 행동들을 통해 좁게는 영천과 넓게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그런데 영천 전투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어 전투 그 자체가 가진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신한국계획(New Korea Plan)’이다. 영천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 당시 있었던 일들이 구전이나 글로 전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영천을 방문했다는 일들부터 1950년 말 북한이 전쟁 초기의 상황에 대해 반성을 하며 영천에서의 전투를 언급했던 사실들은 영천 전투의 중요성을 후대에 전하기 좋은 소재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한국 계획은 듣는 이에게 더 자극적인 소재였다.

신한국 계획이란 영천의 위기 속에 미 합참이 영천이 북한군에게 돌파되면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 그리고 일부 민간인을 합쳐 60여만 명을 미국령 서사모아제도에 재배치해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한 책에 본 내용이 언급된 이후 일부 연구자들이 2차 자료만을 보고 개인의 학술논문에 정확한 근거 표시 없이 기술했고, 여러 강연에서도 영천 전투를 강조하기 위해 이 내용이 사용되었다. 언론 역시 1차 사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로 썼다.<sup>20)</sup> 결국, 이러한 내용은 영천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영천 전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sup>21)</sup>

그러나 신한국 계획에 대한 1차 사료에 의한 근거는 발견된 바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신한국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어 사전에 거론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으나,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공개된 현재 시점에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에 미 합참이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합참이 남긴 문서 어느 곳에서라도 남아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대한민국의 철수에 대해 미 합참이 승인권을 가졌는지도 불명확하다. 미

20) ‘영천 전투’와 ‘신한국계획’의 키워드로 온라인 검색 시 중앙과 지역의 일간지 다수가 영천 전투와 신한국 계획을 다룬 기사들을 보도했음을 알 수 있으며, 영천 전투 호국기념관에도 전시물을 통해 신한국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1)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웹사이트에 영천 전투 소개란에 국방일보 기사를 출처로 신한국 계획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영천시청 <https://www.yc.go.kr/memorial/01003/01036/01037.web>(검색일: 2022.12.14).

합참은 군사작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최상위 군사 제대임은 분명하다. 인천상륙작전 실행을 위해 미 극동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 역시도 미 합참을 설득해야 했던 사실은 그들의 권한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인의 이동까지 결정해야 하는 신한국 건설에 대한 승인권을 미 합참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 합참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승인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즉 신한국 계획의 수립은 한반도에 군대 투입을 결정했던 미국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이상호 박사가 군사사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군사(軍史)』에 2016년 발표한 논문 「한국전쟁기 미국의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은 신한국 계획이 근거 없는 내용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22)</sup> 여기서 해외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만이 아니라 국내의 제주도과 남해안 등 도서 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외 망명정부에 관한 이야기는 전쟁 발발 이틀 뒤인 1950년 6월 27일 오전 07시 국무총리 서리인 신성모와 주한 미국 대사인 무초(John J. Muccio) 간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긴 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본에 망명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지 신성모 총리 서리가 무초 대사에게 문의했고, 무초가 어떠한 구체적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측 기록에 남아있는 정도이다.<sup>23)</sup>

이상호 박사의 논문은 한국 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안이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를 중국군의 참전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sup>24)</sup> 그러나 이 시기의 논의는 대체로 군사적인 철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주목할 점은 군 수뇌부 간에 이루어진 군대의 후방지역 철수 논의였지만, 이 역시도 유엔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 행정부 등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민간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유엔군의 철수 문제에도 정치 지도자와 국제기구의 승인 등이 필요했던 것이다.

망명정부 계획이 구체화한 것은 1951년 1.4 후퇴 바로 직전이었다. 중국군의 참전과 소련과의 전면전까지 예상되는 시기가 되자 미국 정부가 드디어 한국 정부의 망명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1950년 12월 28일 미 국무부가 처음으로 구체화된 망명정부 계획안을 만들었다. 그들은 국회의원, 중앙 및 지방 고위직 관료와 가족, 고위 장교단, 민간 지도

22)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국의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 『군사』, 제10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23) 위의 논문, p.179.

24) 위의 논문, p.184.

자, 한국군 5만 명 등을 포함해 약 57,700명을 제주도로 이동시키는 계획안을 마련했다.<sup>25)</sup> 이후 1.4 후퇴가 있고 난 후, 미 합참은 한국 망명정부 수립에 관한 건의 내용을 담은 NSC 101을 작성했다. 이 문서는 미 합참이 망명정부를 행정부에 건의할 뿐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월 중순 미 합참과의 논의를 통해 제주도에 100만 명 정도를 이주시킬 지 아니면 전 세계에 1~2만 명의 소규모 한국 주요 인사를 분산시켜 수용시킬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적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은 비밀로 논의되었지만, 1950년 1월 15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를 통해 대중에게 보도가 되기도 했다.<sup>26)</sup>

소련과의 전면전이 예상되던 1951년 4월 초 한국정부의 해외 망명 계획은 극동군사령관에 의해 Operation Plan CINCFE 4-51이란 문서로 준비되었다.<sup>27)</sup>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간의 긴장과 대립을 고려한다면 미 행정부가 받아들일 계획안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지만, 그 안에는 망명 대상과 구체적인 후보지가 언급되어 있어 흥미로웠다. 더욱이 당시 미 육군본부 등은 대상 인원이 많은 것과 후보지들이 거리상 너무 멀다는 점을 들어 극동군사령관의 계획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있다. 어쨌든 여기에 언급된 후보지로는 사바이(Savaii), 유폴루(Upolu), 서사모아(Western Samoa), 팔라우(Palau), 얍(Yap), 포나페 열도(Ponape islands), 괌(Guam),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하와이(Hawaii), 미국 본토 등이었다. 드디어 서사모아라는 지역이 망명지로 처음 이름을 드러냈다. 아마도 누군가 여기서 언급된 내용을 영천지구 전투의 중요성 강조에 잘못 인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후에도 소련과의 전면전 위협 속에 미국 정부와 군부는 한국 망명정부 후보지에 대하여 계속된 논의를 이어갔다. 다행인 것은 1951년 후반기에 들어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고착되고 진지전과 고지전이 이어지자 한국정부의 망명계획 논의 자체가 시들해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대중들에게 영천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한국 계획은 아직 발굴된 당시의 공식문서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물론, 영천 전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전투가 아니기에 무언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될만한 강력한 신화적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공식적 문서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확인된 사실인 것으로 오인되어 공식적인 장소와 문서에 등

25) 위의 논문, p.190.

26) 위의 논문, p.195.

27) 위의 논문, p.196.

장하여 대중을 속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영천 전투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바람직한 일이다. 즉, 필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신한국 계획과 같은 자극적 소재 없이도 알려진 정치적, 군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계속된 중요성 논의 및 학문적 연구만으로도 영천 전투는 높게 평가될 것이라 확신한다.

#### IV. 나오며

본 연구는 1950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영천 시가지를 중심으로만 집중적으로 서술되고 주목받아온 영천 전투를 영천 관내에서 일어난 세 개의 전투로 확장하여 정치와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영천에서의 북한군의 위협은 빠르게는 7월 초부터 북쪽의 보현산 부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8월 말과 9월 초에는 신녕과 영천 시내로까지 확장되었다. 보현산 부근에서의 전투에는 북한군의 유격전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이 돋보였다. 정규군 간의 전투로 확대되기 전까지 영천 관내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영천 주민들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협조했던 점은 영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에 충분하다.

8월 초 형성된 최초의 낙동강 방어선 작전부터 8월 중순 이후 조정된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전투까지 안동에서 의성, 그리고 신녕으로 이어지는 축선에서 국군은 열세한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군 제6사단은 8월 말 조림산~갑령~화산으로 이어지는 선까지 밀렸다. 신녕, 그리고 후방으로는 영천과 대구의 동측방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6사단은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보현산에서 방어선이 무너지며 영천 시내로 밀렸던 국군 제8사단의 추후 전투에 큰 역할을 했다. 만약 신녕 전방의 북한군 제8사단이 돌파에 성공 후 영천까지 남진한 북한군 제15사단과 합류에 성공했다면, 아군의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의 성공적 방어로 인해 국군 제8사단은 서측방의 안전 속에 제15사단의 파상공세를 영천 시내에서 저지하고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영천 전투는 개별적인 전투로 그 군사적 의미가 부여될 것이 아니라 보현산 부근 전투, 신녕 전투, 그리고 영천 시가지 전투를 합쳐서 조명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신한국 계획’이라는 자극적 소재의 근거 없음에 대해 지적했다. 영천 곳곳에서 강조되는 신한국 계획은 영천의 위기 속에 미 합참이 서사모야제도에 한국의 망명정부 수립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국 계획은 출처가 불명확하며, 역

사적 사료로서 밝혀지지 않았다. 6·25전쟁에서 영천 전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기에, 굳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 영천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 자체의 의미를 퇴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끝으로 본 연구는 신한국 계획이 어디서,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를 찾는 후속 연구를 통해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영천 전투의 진정한 의미를 재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上)』,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낙동강방어작전기』,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김두현, “낙동강 방어선에서 영천지구 전투 연구”, 『군사논단』, 제85호, 한국군사학회, 2016.  
김정무, “영천지구 전투 재조명”, 『국방과 기술』, 제99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6.  
김진수, “6·25전쟁기 영천전투의 재조명”, 『한국군사학논집』, 제77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1.  
박경석, “영천지구 전투”, 『전사』, 제8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76.  
육군군사연구소, 『1129일 간의 전쟁 6·25』,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4.  
육군군사연구실, 『영천 대대전』, 계룡: 육군군사연구실, 1995.  
육군본부군사감실, 『6·25 사변 육군전사 제3권』, 서울: 육군본부군사감실, 1954.  
육군제3사관학교, 『향토전사』, 영천: 육군제3사관학교, 1991.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국의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 『군사』, 제10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제2군 사령부, 『2군 지역 전사』, 제2군 사령부, 1995.  
영천시청 <https://www.yc.go.kr/memorial/01003/01036/01037.web>(검색일: 2022.12.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영천시(永川市)),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7752>(검색일: 2022.12.06).

【 Abstract 】

Reassessment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Yeongcheon

Park, Donghui

This research aims to reevaluate the military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Yeongcheon, a major engagemen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r along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The battle, which occurred from September 5 to 13, 1950, has traditionally been described and focused on intensively around the city of Yeongcheon. However, this study seeks to expand the scope of the battle beyond the city limits to encompass three distinct engagements within the Yeongcheon area in order to reassess its political and military significance. Comprising battles near Bohyunsan, Sinnyeong, and within Yeongcheon city itself, the Battle of Yeongcheon is interconnected, and a comprehensive analysis is essential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military triumph of the ROK army in Yeongcheon. However, since the 2000s, the military importance of the Battle of Yeongcheon has been distorted by sensational and unsubstantiated claims such as “the New Korea Pla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s of the historical distortion issue created by the New Korea Plan and investigates the exile government plans devised by the U.S. during the Korean War to demonstrate that the U.S. did not devise the New Korea Plan during the Battle of Yeongcheon.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intrinsic military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Yeongcheon, which consists of three distinct phases.

**Key Words** : the Korean War, Battle of Yeongcheon, Battle of Sinnyeong, Battle of Bohyunsan, New Korea Plan

---

• 논문투고일 : 2024년 4월 23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5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5월 21일